

곡성·구례·하동·광양 '섬진강 관광시대' 연다

10일 광양매화축제장서 선포 전국 첫 통합관광벨트 천명 모바일스텝투어 등 이벤트

섬진강권 기초자치단체인 곡성·구례·하동군과 광양시가 지역을 연계한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10일 '섬진강 관광 시대 선포식'을 개최한다. 4개 지자체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처음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하동 벚꽃축제, 곡성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섬진강 통합 관광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2020년 섬진강 수해를 입은 4개 지자체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2021년 2월 섬진강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섬진강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광역 관광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선포식은 4개 지자체 축제 중 가장 먼저 광양 매화축제장에서 열린다.

4개 지자체 시장·군수, 의장 뿐 아니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통합 관광 시대 도약'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4개 지자체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4개 지자체 봄꽃 축제를 공동 홍보하고

전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앱 '캐시워크'와 함께 봄꽃 축제 연계 모바일 스텝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캐시워크 팀워크 챌린지에 참여해 4개 지자체 관광지 8개소 중 4개소 이상을 방문한 선착순 1000명을 2차례 나눠 1만 캐시를 지급한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3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지역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계 할인제도 운용을 시작한다.

4개 지자체 주민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되고 관광객들은 13개 관광지 입장권을 소지하고 30일 이내 다른 대상지를 방문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례는 기초자치체가 중심이 돼 지역을 넘어 광역 관광권을 구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섬진강 수해라는 아픔을 딛고 일어난 4개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 인구활력도를 높여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 관계자는 "섬진강권은 가치 있는 생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연계 관광을 추진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며 "주변 지자체가 모여 섬진강권을 생태·문화·레저가 복합된 국내외 최고 수변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보릿짚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 이춘복 보성군의원

영농 부산물 중 하나인 보릿짚의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춘복 보성군의원은 6일 5분 발언을 통해 "보릿짚은 퇴비화를 위해 토양 속에 섞고 갈아엎는다고 해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잔재물이 떠오르고 유기산과 가스가 발생한다. 모내기 이후 비 뿌리의 활착 지연을 유발, 많은 농가가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민들이 손쉽고 처리가 빠른 소각을 선택한다. 소각 행위로 농민들이 지도·단속을 당하기도 한다.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릿짚 환원사업 △농업 잔재물 파쇄기 임대사업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보릿짚 소각은 유기물을 연기로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보릿짚의 효율적 처리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대통령기 씨름대회' 유치 협약 장흥군-대한씨름협회

장흥군과 대한씨름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성 군수,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 김천환 군 씨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를 통해 '어머니 품 장흥'을 전국에 알리고 민속 씨름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올해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오는 7월3-9일 장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초·중·고·대·여성·남자 일반부 등 6개 부에 선수, 임원 등 1200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국 방송을 통해 정남진 장흥을 알리고 지역민의 소득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여수시, 지역 농·특산물 수출 지원 수출 대체사업도 병행 추진

여수시는 지역 농·특산물 수출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 일부를 도비 30%, 시비 70%로 매칭해 지원한다.

내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물류비 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대체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수출 대체사업'은 해외 진출 시 △판매수수료 및 현지 판촉행사 △해외 유기농인증 △제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농산물 외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파프리카, 백합 등을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생산농가에 수출물류비 45톤, 1800만원을 지원했다.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분야별정보 산업경제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대체지원 사업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61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영기 기자

보성군립국악단 창단

예술감독 박춘맹 명창

서편제의 본향 보성군이 군립국악단을 창단했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소리의 새 도약을 위해 지난해부터 보성군립국악단 창단을 추진, 최근 공개신청과 오디션을 통해 9명의 단원을 최종 선발했다.

군립국악단 신입 예술감독은 박춘맹 명창이 맡았다.

박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제5호 심청가 이수자다. 1983년 국립창극단 단원을 시작으로 광주시립국극단 창악수석 단원, 전남도립국악단 수석 단원을 역임했다.

50여 년간 소리에 매진하며 지역에서 후진양성에 힘쓰는 한정하 명창은 명예 단원으로 위촉됐다.

보성군립국악단은 매년 1차례 이상 정기공연과 판소리성지에서 추진하는 토요 상설공연, 각종 국악프로그램 등에 출연할 계획이다.

박 예술감독은 "창작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함께 단원들의 기량 향상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공연 제작, 보성소리 계승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낙시 등 해양레저 공간 조성 여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시 삼산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해양레저 공간이 마련된다.

6일 여수시는 삼산면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낙시와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유어장)을 조성해 마을 소득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지난달 삼산면 덕촌어촌계 마을어업권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 어민 주도로 관광객을 모아 바다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 체험활동이 이뤄진다.

지난 2021년 국립공원공단은 자연보호를 위해 거문도 갯바위 일부를 생태휴식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다. 어민들은 낚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소득 증대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시는 소멸 위기 섬마을 어촌계에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어장 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으며 최근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유어장 지정을 끌어냈다.

여수=이영기 기자



구례 반곡마을 산수유 '활짝'

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산수유꽃 군락을 이룬 구례군 산동면 반곡마을에 산수유꽃을 만끽하기 위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열리는 11~19일까지 산수유꽃도 절정

구례군 제공

장흥군, 수열에너지 구축 '친환경스마트 그린도시'로

총사업비 100억원 투입

장흥군은 장흥댐과 탐진강의 풍부한 물을 활용해 수열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는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수열에너지 시설은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은 물의 온도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석탄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어서 탄소 배출을 낮추고 냉난방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장흥군은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한다.

장흥읍 일대에 수열 원수라인 구축(0.775km)과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건축, 수열 시범 실증단지 구축, 수열 생물 자원보전시설 구축,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조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장흥군보건소 등 수열에너지 도입기관에 온실가스 45% 감축, 미세먼지 42% 저감, 에너지 사용량 36%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연

간 2억57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은 시범 실증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생태영향 연구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 환경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열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깨끗한 물의 도시, 친환경 스마트 그린도시 장흥'의 이미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단계적으로 수열에너지를 도입해 소도시형 그린뉴딜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4년만에 열리는 광양매화축제, 주차걱정 마세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4년 만에 공식 개최되는 가운데 관광객 불편을 줄여줄 다양한 주차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 및 유료주차장 도입, 주말과 주중의 탄력적 주차장 관리 등으로 교통혼잡 최소화, ESG 실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축제장 주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 섬진강을 배경으로 유령형 프리마켓 '리버마켓@섬진강'을 펼쳐 주차장

에서부터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는 구상이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무료와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섬진강 둔치주차장은 전 축제 기간 무료로 운영하고 도시주차장과 섬진주차장은 평일엔 무료, 상춘객이 몰리는 주말엔 유료로 전환한다.

주 행사장과 연결한 매화주차장은 축제 기간 내내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3시간 기준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는 1만2000원이며 각각 5000원권과 1만원권 쿠폰으로 되돌려

준다. 3시간을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주차장은 내비게이션에서 신원둔치주차장, 매화주차장, 다압면 도사리 77(도시주차장), 도사리 산 82(섬진주차장)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광양시는 축제 기간 주말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둔치와 도시주차장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수월정, 신원교차로 등 병목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상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광양=인영준 기자